

#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미술 한류’ 이끈다

### 9~10월 진도·목포서 개최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주제 10개 국 160여 명 작가 참여...수목패션쇼·수목콘서트·대학수목제 등

수목은 흑백이란 기존 틀을 과감히 벗고 다변화·자문화·국제화를 통해 전남을 미술한류의 중심으로 이끌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목의 본향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과 2021년, 2차례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통해 전통수목에 현대수목을 더하고 끊임없는 확장성과 수용성을 보여줬다.

실제로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에선 ‘오재찬란 모노크롬’이란 주제를 구현, 수목의 본질은 흑백이 아니라 붉은 빛, 푸른 빛, 누른 빛 등 여러가지 색이 담겼고,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수목 정신이 있다면 수목화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찬사를 받았다.

이처럼 지난 두 차례의 수목비엔날레를 통해 지필묵이라는 전통 재료나 수목산수라는 고답적 주제의 수목화 전통을 계승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수목정신을 담은 모든 현대미술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알렸다.

세 번째를 맞은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송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열린다.

공재 윤두서, 소치 허련, 남농 허건 등 수목화 거장들에게 예술혼을 불어넣은 예향 남도의 지역적 정체성과 예술적 우수성을 담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10개 국 160여 명의 유명작가가 참여해 다변화된 전통수목과 현대수목의 조화를 선보인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

의 작품 전시와 지난 비엔날레에서 호평받았던 수목패션쇼를 비롯해 새롭게 선보일 수목콘서트, 대학수목제 등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풍성한 수목의 매력을 관람객에게 선사할 방침이다.

또 비엔날레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케이(K)-컬처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의 장이 되도록 국내외 방문객 유치를 위해 지역 우수한 관광자원과 대표 축제·행사를 연계하고, 지자체·유관기관·문화예술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전통수목 본연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현대수목의 화려함, 입체감, 생동감을 연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한국수목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전남을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술 한류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새해 소망 담아 연 만들기 설 명절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을 찾은 어린이와 엄마가 새해 소망을 담은 연을 만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국선 설날·베트남은 쫓” 美 의원, 음력설 기념 결의안 발의

영국박물관이 음력 설을 ‘중국 설’로 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음력 설을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전통으로 소개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3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그레이스 팅(민주당·뉴욕)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음력 설의 문화·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한다’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음력 설은 중국에서 시작된 지 4000년이 더 지났으며 동아시아와 동남아의 여러 국가가 기념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음력 설을 설날로 지내

며, 베트남인은 음력 설을 쫓(Tet)이라고 부르고 베트남 황도십이궁에 따라 2023년을 고양이의 해로 여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인의 디아스포라(집단 이동)로 음력 설이 전 세계가 매년 축하하는 행사로 확대된 가운데 미국에서도 수백만명의 아시아계와 비(非)아시아계 미국인이 음력 설을 기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원은 음력 설의 문화·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토기와 고양이의 해인 올해 음력 설에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 세계에서 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모든 이에게 가장 깊은 존중을 표하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새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음력 설 결의안에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랜드(민주·워싱턴),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등 한국계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8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7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더”

#### 광주시, ‘청년13통장’ 참여자 모집...31일부터 온라인 접수

광주시는 “일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삼)통장’ 8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610명으로 지난해 7기 500명보다 110명이 늘었다.

‘청년13(일+삼)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청년에게 추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금융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며 만 19~39세 근로 청년 중 본인 세전 월 소득이 72만 3368원~249만3470원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광주시 민간위탁기관인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13accoun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참여자 선정을 위해 서류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며, 추첨 과정은 2월17일 유튜브 채널(광주청년13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참여자는 2월부터 1회차 10만원 납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적립해야 하며, 광주시는 10개월간 저축 관리 비용, 단계별 금융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금융역량 강화 등도 지원한다.

김동현 광주시 청년정책관은 “청년13(일+삼)통장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이 광주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선발 인원을 610명으로 대폭 확대한 만큼 지역 청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북한 최고지도자 통치수단은 ‘고급 시계’

### 세이코·오메가·롤렉스 등 1960년대부터 ‘하사품’으로 활용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3대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간부와 주민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해 고급 시계를 ‘당근’으로 활용했다.

새해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미레세대’를 상징하는 조선소년단에 한 선물을 살펴보면 어떤 품목이 북한 사회에서 인기 있는지 엿볼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당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조선소년단 제9차 대회 대표들에게 일제 세이코 손목시계를 선물했다.

해당 모델은 국내 기준 5만~10만 원 사이에 팔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가 금지하는 고가의 사치품은 아니지만, 북한 보도를 보면 반항은 꽤 컸던 것으로 보인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6일 기사에서 한 소년단대회 참가자가 “손목시계를 받아 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시계 초침소리를 잠자리에서도 잔뜩하고 싶어 머리맡에 벗어놓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이 시계를 ‘하사품’으로 활용

한 건 김일성 주석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주석은 6·25전쟁의 상흔이 채 지워지지 않았던 1960년대에도 고위층 간부들에게 스위스제 롤렉스나 금으로 된 오메가 시계를 선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도 이런 관행을 유지했는데, 스위스시계 산업연합에 따르면 북한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스위스 명품시계 2400만 달러 어치(당시 환율로 약 248억원)를 수입했다.

24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통일화보 6호’를 보면 북한 만수대에술단 단장을 지낸 인민배우 박영순은 케이스에 김정일 친필을 담은 오메가 시계를 받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를 규정 한 이래 북한의 고급 시계 수입길은 막혔지만, 오늘날에도 중국·러시아 등과의 밀수를 통해 하 사용 시계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처분하기 힘든, 부동산**

교환 하실분, 20년 노하우. 010-3605-5000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좌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